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 실현”을 모토로 조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 영 식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과를 뒤로하시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4차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우리조합은 지난 '96년 창립 이래 조합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관심의 결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이러한 성원에 답하고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으로 21세기 건설금융을 선도하

는 보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의원님 여러분!

최근 조합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건설보증시장 개방, 건설업겸업제한폐지 등이 궁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경쟁시대의 도래입니다.

조합도 더 이상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가 아님을 저 자신이 잘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조합은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 실현”을 모토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조합 내부의 조직체계, 서비스상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새로이 검토하여 조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조합원사의 부도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후 사후관리 업무는 물론 앞으로는 부실채권을 방지 하고자 사전 예방관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합원사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근로자 재해공제사업을 추진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식정보경영의 이 시대에 경쟁력 있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제반 전산시스템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조합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성과를 얻기 위하여 조합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오늘 총회에 상정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건설경기 성장둔화 등 여러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합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 및

근재보험 등 신규사업 관련 비용예산을 반영하고, 설비업계와 조합의 공동발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으며, 보증시장개방 및 전면신용거래에 따른 사전·사후관리강화 비용을 반영하는 등 조합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 기초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추정수익은 257억원으로
 - 영업수익은 129억원,
 - 영업외수익은 12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 비용은 186억원으로
 - 인건비 65억원,
 - 경비 79억원, 기타 법정충당금 및 예비비 등을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세전이익을 71억원으로 하고, 법인세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16% (7억원) 증가한 51억원으로 추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위원장단에서 사전 수차례 심의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본 예산(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조합발전을 위하여 대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내빈과 대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내부 조직체계 개편, 서비스 상품의 다각화 등으로 명실상부한 조합이 되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건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우리조합은 수익성 사업이 확대되며, 조만간 건설보증시장 개방 등으로 무한경쟁시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 임직원 모두가 미구에 닥쳐올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 경영 실현”을 모토로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각오를 다지고 있어, 조합의 밝은 앞날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 업계도 일반·전문 간의 업역 구분에서 많은 보호를 받아 왔으나, 4년 후면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보호장벽은 완전히 해제되고 치열한 무한경쟁만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시대에 우리조합과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설비건설의 비전 제시와 발전 방향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조합 총회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승일 명예회장님과 홍평우 명예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식

우리조합은 내년부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근로자 재해공제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행으로 조합은 수익성을 높이고, 조합원사는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공제상품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재해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조합은 자금 운용방법 다양화 등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불어닥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도 흔들림 없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IT기술개발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조합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한발 더 앞서가는 조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조합이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경쟁력 강화는 물론 탄탄한 재무구조와 조합원의 출자지분 가치 상승, 이익 환원 등 가시적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 여러분들은 조합 내부의 조직체계 개편, 서비스 상품의 다각적인 검토, 전산시스템 개편 등 조합의 체질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총회가 조합의 발전을 다지는 총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대의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성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4차 총회(정기) 개최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제24차 총회(정기)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영식)은 지난 10월 3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의원 및 정부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 실현”을 목표로
- △ 서비스 생산체계 최적화
- △ 조합원 지원체계 혁신
- △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성화
- △ 조합자산 건전성 확보 등의 추진사업을 발표

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건설경기 성장둔화 등의 경영여건을 감안한 긴축편성으로, 257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전 이익은 7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영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2007년 9월말 조합원 5,421개사, 자본금 4,402억원으로 성장했다”며 “내년부터는 조합원사의 편익제공을 위해 근로자 재해공제사업을 추진,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는 부실



▲ 이영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자 재해공제사업을 추진해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료 이용하는 등 조합원사 편익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방지하고자 사전 예방관리에 역점을 두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우리 조합은 수익성 사업이 확대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 등 무한경쟁시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합 임직원 모두가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 실현’을 모토로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조합이 내년부터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근로자 재해공제사업을 추진키로 해 조합의 수익성 증대는 물론 조합원사의 비용절감효과도 기대되므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공제상품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박종학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근로자 재해공제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조합의 수익증대와 조합원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의 실현

바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설비조합 근로자재해공제상품입니다.

상품 설명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혜택

-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할 때 보다 10% 절감된 보험료 제공
- 책임경영실현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수익을 환원합니다.
- 일원화된 조합서비스(보증, 근재보험, 용자, 신용평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구분	공사장별 계약	연간포괄 계약
내용	공사현장 단위로 공제계약 체결	공사계약자 단위로 공제계약 체결
공제기간	공사기간 원칙	1년 원칙
제출서류	① 근로자재해공제계약청약서(조합양식) ②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공사비내역서 사본(인건비내역포함)	① 근로자재해공제계약청약서(조합양식) ②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③ 산재보험보험료보고서 사본
인건비 계산방법	공사내역서상의 인건비 ※ 공사내역서에서 확인 불가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노무비율을 적용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급여, 상여금)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 임원급여, 퇴직급여는 제외

※ 공제료산출방법

- 공사장별계약 : 당해 공사현장의 인건비 × 공제요율
- 연간포괄계약 : 전체근로자의 연간 총인건비 × 공제요율

보상내용

- 보상한도액
1인당 1천만원에서 5억원, 1사고당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하며, 공제기간 중에 사고 횟수와 관계 없이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상실수익금(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초과한 금액)

- 향후치료비(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초과한 금액)
- 위 자 료
- 방어비용
- 소송비용: 소송, 조정의 경우 필요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 협력비용: 손해보험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보상안내

우리조합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처리를 보장합니다. ☺

보상처리 절차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직접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보상처리 흐름도

- 사고 접수 전화 : 1588-0100
-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보험증권사본
- 산재 급여 지급 확인원
- 근로계약서
- 공사(하)도급 계약서
- 임금대장
- 휴유장애 진단서

